

4파전 대표경선... 범주류 단일화 변수

민주 5·4전대 후보 등록... 판세는

김한길, 강기정·신계륜·이용섭 '1강 3중'

최고위원 10명 출사표... 호남표심 결집 관건

민주통합당이 8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9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12일 예비경선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각각 3명, 7명으로 압축하고, 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대표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만들기 위

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다. 대표 후보로는 강기정 김한길 신계륜 이용섭(가나다 순) 의원 등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체적인 판세는 비주류 좌장격인 김한길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며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1강 3중의 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재대로 된 반성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선 패배 책임론을 내

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평인사를 약속하며 화합론을 제시하는 등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범주류 측으로 분류되는 강, 신, 이 세 후보는 당의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는 '혁신 전담론'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특히, 범주류 후보들은 '김한길 대세론'에 맞서 연합 및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단일화 성사 시 예측불허의 접전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범주류 후보들은 탈당 후 신당 창당 경험이 있는 김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의 분란이 증폭되고 분당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단일화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범주류 후보들이 모두 광주·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호남 표심의 결집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범주류가 추

진하는 단일화야말로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자 계파 패권주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최고위원 경선에는 양승조, 우원식, 조경태, 유성업, 장하나, 황주홍, 안민석, 윤호중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10명이 출사표 던졌다.

비주류인 황 후보의 경우, 당권 주장인 김한길 의원과의 런닝메이트로 상징되고 있는데다 호남 표심의 결집이 이뤄질 경우, 무난하게 첫-오프를 통과,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권 경쟁에 지역 출신 후보들이 3명이나 나서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려가고 있다"며 "특히, 이들이 단일화를 통해 김한길 후보와 박빙의 구도를 만든다면 전대의 흥행도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텃밭표심 잡아라" 민주 경선주자 잇단 '호남행'

김한길·신계륜 등록 첫날 방문... 적극 지지 호소

'무연고' 안민석 의원도 광주서 출마 선언 '눈길'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당권 및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텃밭인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이며 표밭 다지기

에 나섰다. 후보 등록 첫날인 8일에는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서울 광진 갑) 의원과 신계륜(서울 성북 을) 의원이 잇따라 광주와 전남을 방문, 각 지역 위원회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광주·순천·여수 지역위원회를 돌며 김한길 의원은 이날 고흥을 시작으로, 강진·해남·무안·목포·영광을 거쳐 광주 남구와 서구 지역 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혁신의 깃발 하나로 뭉쳐야 하며, 이제는 계파정치를 마감하고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등의 명찰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가 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모셔 당 경

쟁력을 극대화하고 계파 안배 등의 관행을 철저히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신계륜 의원은 곧바로 고향인 함평을 찾아 선영을 참배한 뒤 8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1980년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신 의원은 5·18 묘역을 찾아 추모

탑에 헌화·분향한 뒤 친구였던 고 박관현 열사와 신배인 윤상원 열사의 묘소를 둘러봤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80년 광주정신을 정치활동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좌절과 절망을 넘어 다시 한번 광주정신으로 민주당을 일으켜 세우는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이례적으로 연고도 없는 광주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 나눠먹기가

아닌 당 전체를 위한 결정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광주의 역사와 함께 있어 있는 시민 정의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며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이룩한 호남 당원의 지지를 회복하고, 이를 동력으로 더 큰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광주에서 출마를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에 ▲공천심사위와 조직강화특위 해체 추진 ▲당원 권리 강화와 가치 복원 ▲세대교체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정책경연대회 법제화 통한 정책정당 도약 ▲민주정책연구소 독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충남 천안) 의원은 9일과 10일 이틀간 광주와 전남지역의 각 지역위원회를 돌며 대의원과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내 이발소를 찾아 머리를 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도전 신계륜 의원 인터뷰

"당대표 경선 '1대 1 구도' 될 것"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4선의 신계륜(서울 광진 갑) 의원은 8일 "당 대표 경선은 가치의 연합을 통해 결국 1대1 구도로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올바른 혁신을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주류와 비주류 간 구도로 이뤄지면 안 된다"라며 "주류 연합, 비주류 연합은 옳지 않으며, 가치연합을 이루면 진정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다른 후보에 비해 출마가 늦었다.

▲그만큼 고심이 많았다. 고심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였다. 김한길 대 반(김) 김한길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가치와 노선중심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김한길 후보와의 가치 차이를 보여 주고 싶다.

-강기정·이용섭 의원과의 단일화는 이뤄지나.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없다. 주류와 비주류 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류와 비주류라는 원칙을 없애야 한다. 노동과 진보, 합리적 보수 등 당내에 있는 여러 가치들을 통합하는 것이 단일화이고, 단일화 요건은 진심인데 이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

주류·비주류 연대 아닌 가치·노선중심 연합해야

광주는 나의 정치 희망

당 혁신 대장정 함께해길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참여와 반성이 지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회성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차기 대선인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와 반성을 해야 한다. 진짜 민주당이 반성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의 혁신 대장정을 가치로 내걸었는데.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

다.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기계적 통합이 아닌 분열된 원인을 분석하고 더 진보적인 가치들을 모아 통합해야 한다.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하고, 건강한 부분은 통합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또한, 정강과 기풍 등 새로운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와 결집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호남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당권 도전 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택한 이유는.

▲함평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컸다. 계립초등학교와 북중, 광주고등학교에 다녔다. 광주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 대장정의 첫 행보로 광주를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번 전대에서 희망의 색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면 민주당은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이다. 호남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고 희망을 이뤄나갔으면 한다.

-서울 노원 병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왜 안철수 후보와 신당에 대해 신경을 쓴지 모르겠다. 민주당이나 잘하면 됐지. 지도부가 노원 병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아닌 노원 병 지역위원회의 대의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참담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신당 창당·민주 입당 모두 고려 대상"

'정치행보' 첫 언급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8일 선거 이후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신당 창당, 민주통합당 입당, 무소속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신당이나 민주당 입당, 무소속 등 3가지가 고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다 경우의 수로는 가능한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물론 확

률은 다들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3가지 선택지 중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안 후보는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 그런 계획은 솔직히 여력이 좀 없다"면서 "일단 만약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당선된 다음 또 여러 말씀 곁들여 듣고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때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낙선해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낙선하면 정치는 그

만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계속할 생각"이라면서 "만약에 낙선한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으로 계속 앞으로 열심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낙선이 신당 창당 또는 민주당 입당 등의 선택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많이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선택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선되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까지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jkpark@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이 치료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공-4738호

임대

- ▶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 ▶ 6층고급주택
- ▶ 병/의원, 약국, 커피숍, 편의점
- ▶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매매

- ▶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 ▶ 매매가 14억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 직접 상담합니다. H.P : 010-3605-5000